"다양한 비즈니스 거점 마련해야"

전북연구원,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사례분석과 활성화 시사점 제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뿐 아니라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정책브리핑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완주군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해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사점을 제안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방식으로 농업구조를 재편하고 '로컬푸드'를 넘어 '사회적경제'로 농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별 조직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이다.

완주군의 사회적경제는 2008년 '로컬푸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컬푸드 꾸러미,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거점농민가공센터 등을 통해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완주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정책추진 등 '통합적인 사회적경제'로 정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요인은 '▲개별 조직의 설립·운영,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거점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등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주민의 필요와 지역 요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직화하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사업에 필요한 물적기반과 안정적 판매망을 갖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사업장'을 꼽을 수 있다. '농가 레스토랑, 농촌 가공 사업장, 체험마을 사업장, 로컬푸드 직매장, 거점농민가공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상품화-소비화'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셋째, 단계별로 정책을 진화(지원정책, 전담부서, 지원조례 등)시키고, 중간지원조직이 정책실행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맡고, 연대조직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연대와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부장)은 "농촌의 현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힘차게 구호 외치는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 관계자들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수 군수실 점거 농성 철수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익산시, 대륙철도 거점역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 초석 마련

익산시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초석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 구축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익산역이 국제역으로서의 역할을 선점·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익산역의 가능성에 대한 논리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됐으며 공고와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사)대중교통포럼이 최종 선정돼 6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한다.

주요 용역 내용은 △국제철도 관련 국가계획 및 국내·외 현황분석 △익산역 국제역 구축의 의미 및 필요성 △국제역 조성방안 수립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대륙철도 거점역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대중교통포럼의 김시곤 교수로부터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익산역의 가능성과 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수행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초석"이라며 "장래 국제철도망 국가계획에 부응하고 국제역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돼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륙철도 거점역 추진사업의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3일 용산역 ITX3회의실에서 철도정책포럼 창립 및 정기회의를 개최해 전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내일 오후 2시, 재난위험 경보사이렌 울려요

전북도, 신속 대피 훈련 실시

전북도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며, 10월 30일 오후 2시 재난위험 경보사이렌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108곳의 경보시설을 활용해, 훈련기간 중 30일 오전 10시에 사전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오후 2시에는 재난위험 경보사이렌을 1분간 발령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라디오 실황방송을 들으며 지진대피 행동요령에 따라 건물 밖으로 이동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훈련에서 도로의 차량통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지역 108곳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은 민방위사태나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유사시 도민 안전을 위해 활용된다. /김진성 기자

의용소방대, 군산 개야도 화재진압 활약 '눈길'

전북도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즉시 개야도에 상주하는 전문 의용소방대원 4명과 화재진화차 1대가 동원되어 초기 연소확대를 저지하고 불씨가 임야 및 주택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방호스를 전개해 적극적인 화재 진압활동을 펼쳤다.

해당 집하장 규모는 600㎥ 정도로 100여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등이 야적되어 있었으며, 개야도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개야도의 경우 소방관서가 없는 도서지역 특성상 소방력 지원이 어려워 지난 2017년 화재진화차 1대가 배치되었다.

도는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화재 및 기타 재난 발생 시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4개 시군 7개소(완주군-동상/구이면, 남원시-산내면, 고창군-상하면, 군산시-개야도/어청도/선유도)에 화재진화차 7대를 배치했으며, 이를 활용해 유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의 자율적 화재진압 능력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선제적 화재진압을 펼친 송정식 개야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도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는 355개대 8,22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7개 분야별(산악, 수난, 화학, 중장비, 안전교육, 안전점검, 화재진압) 7개 시군에 12개 전문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다.

/김진성기자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전북도, 결의대회와 이국종 교수 특강 '큰 호응'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대·내외 표명

전북도는 28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와 명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이국종 교수의 명사 특강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실천다짐 결의대회에서는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의 '19년 적극행정 추진상황보고와 직원대표 2명의 '도민 최우선, 현장중심, 소극행정 혁파, 신뢰구축 행정, 미리살피는 행정' 5대 분야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문 낭독, 응원문구 펼치기, 소극행정 문구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명사 특강으로 초청된 이국종 교수는 강연에서 '적극행정 지금이 골든아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중증외상치료의 현실에 대한 소개와 중증외상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비와 시설이 아니라 의료진, 소방대원, 공무원 등 관계자의 사고전환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정'을 주문했으며, 이러한 열정을 뒷받침할 시스템과 보상 또한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 의대 교수,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구출돼 생사를 넘나든 석해균 선장 소생치료, 북한 귀순 병사 수술 등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중증외상치료의 권위자이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황무지를 개간하듯, 전북이 씨앗을 뿌리고 키워, 지역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 탄소산업이야말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강조하며, 공심(公心)을 지닌 공직자라면 적극행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과 함께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오늘 특강으로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마인드 함양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당부했다.

향후, 전북도는 인사혁신처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사례집 발간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학장(강정원)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턱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정구분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중,고등반, 초등,유치반(차량운행)
	취업면접반(개인지도)
	회장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면접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우석대,전주교육대,군산대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1호 지도자
- 기관,단체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전주,완주,진안(전주에서)
남원,장수,순창지역(남원에서)
군산,부안지역(군산에서)
김제,완주지역(전주에서)
익산지역(익산에서)
정읍,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 · 면접 · 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